

# 중국 맞불 관세, 미국 11월 선거 변수되나

## 미국 철강 관세폭탄에 보복 농축산물 관세 25%까지 인상 트럼프 표발 '팜 벨트' 직격탄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 공격에 중국이 미 농산물을 겨냥한 맞불 보복에 착수했다. 중국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발이라고 할 미국산 농산물을 집중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중국 재정부의 국무원 비준을 거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일부 수입품 관세 감면 중단 통보'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비롯해 미국산 수입품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25% 인상하고 과일 등 120개 수입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안보 예외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셰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중국의 이익을 엄중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어 "미국의 조치가 중국에 끼친 손해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러한 조치를 한다"며 "현재 시행하는 보세와 감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며 "이번 조치는 WTO 규정에 따라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과일과 말린 과일, 인삼, 견과류, 와인, 돈육과 일부 철강제품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30억달러(약 3조1900억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당시 15% 관세 부과 품목을 1부, 25%의 관세 부과 품목을 2부 문으로 나눠 미국의 조치에 따라 순차적으로 1, 2부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발표 내용과 달리 1, 2부문에 대해 동시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 이번 조치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6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세를 물리기로 한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줬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통상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이날 고율관세의 표적으로 선택된 농축산물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후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팜 벨트'(농장지대·Farm Belt) 주(州)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웰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직년 대선 때 돼지를 많이 생산하는 상위 10개 주 가운데 8곳에서 승리했다. /연합뉴스

## '텐궁 1호' 칠레 앞바다 추락 파편 대부분 마찰열에 소멸

중국 당국은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天宮) 1호'가 2일 오전 8시 15분경(현지시간)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파편 대부분이 마찰열에 소멸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유인우주선 공정관공실(CMSEO)은 베이징우주비행 통제센터와 유관 기구의 분석 결과 텐궁 1호가 이날 대기권에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파편 대부분이 타버렸고 추락 지점은 남태평양 중부라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텐궁 1호의 큰 파편이 지구 표면으로 떨어질 확률이 낮다고 밝힌 바 있다.

CMSEO는 텐궁 1호가 조만간 추락할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달 14일부터 주(周)단위로 보고하던 텐궁 1호 궤도 상황 보고를 추적해왔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와 각국 발표 내용이 일부 다른 부분도 있어 텐궁 1호의 파편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곳곳에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합동우주작전본부(JSPoC)는 텐궁 1호의 추락 지점은 남태평양 영역이며 칠레 앞바다에 해당하는 남위 13.6도, 동경 195.7도 지점이라고 확인했다. /연합뉴스



바티칸 부활절 미사...교황, 한반도 평화 기원 1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부활절 미사가 열리고 있다. 교황은 이날 부활절 메시지에서 "한반도를 위한 대화가 결실을 보길 간절히 기원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화가 지역 화해와 평화를 진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달라진 김정은...남북·북미회담서도 봄바람 일으킬까

### 적극적 대외 행보 눈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전격적인 중국 방문에 이어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3일로 예정된 남북 합동공연을 관람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일 저녁 남측 예술단의 단독 공연이 열린 동평양대극장에 부인 리설주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김 위원장의 첫 방중이면서 집권 이후 첫 외국 방문이기도 했다.

평양에 돌아온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에는 북한을 방문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얼어붙었던 북남관계가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길을 열어준 IOC의 공로"라며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대외 행보의 보폭을 넓히는 것을 두고 본격적인 국제무대 데뷔에 앞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텐궁 1호' 추락 지점**  
텐궁 1호 2일 오전 9시 16분경 남태평양에 추락,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파편 대부분 마찰열에 소멸

자료/ 미국 합동우주작전본부(JSPoC)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경제전문가 배요경

배요경(裴耀卿, 681-743)은 강주 직산 출신으로 자는 환지다. 현종 때의 명 재상으로 민생안정과 재정개혁에 크게 기여했다.

남제의 배속업 7세손으로 과거를 거쳐 관리생활을 시작했다. 국자주부 해를 거쳐 현종 개원 초 장안령에 임명되었다. 재임중 민간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을 선지급해 중간 상인이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해 국고를 충실히 하였다. 호부시랑을 거쳐 제주, 선주, 기주 자사를 역임하였다. 일찍부터 경제전문가로 명성을 날렸다. 개원 20년(732) 신안왕 이위를 하동·하북 행군부대총관으로 삼아 해와 거란을 공격토록 하였는데 부총관으로 참여해 공을 세웠다. 황제가 비단 20만

여 동도로 운반하고 동도에서 바꾸어 조운해 관공을 충실하게 만들어 수년 동안 먹을 곡식을 저축하게 되면 수해와 한해를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임이다." 주요 길목마다 창고를 설치해 운영토록 할 것도 건의했다. 황제가 전적으로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소송과 한휴가 나란히 재상직에서 물러나자 배요경과 장구령을 재상으로 발탁했다.

734년 장구령이 백성이 돈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도록 주청하자 배요경이 반대 의견을 내었다. "이를 한번 허용하면 사람들이 농사를 버리고 이익만 뒤쫓을 것이니 함부로 나쁘게 되는 것이 더욱 심해질까 두렵습니다." 결국 주조를 금지하였다. 그는 강회, 하남의 전운사를 겸직해 곡물의 운송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독려했다. 황하 입구에 물품을 집하하는

### 민생 안정·재정 개혁에 큰 공

필을 해죽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도록 명하였다. 그는 예정된 기일보다 일찍 서두르고 길을 나누어가 오랑개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공리에 배급을 완료하였다.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일화다. 황하 주변의 지방관으로 재직 중 홍수가 나 하천이 붕괴되자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제방 공사를 서둘렀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임지를 바꾸는 황제의 명령이 내려왔다. 그러나 공사를 완료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명령 받들기를 거부하였다. 제방 공사가 완공된 후야 황제의 명을 받들었다.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적을 기려 공적비를 세웠다고 한다. 산동성 제주자사 재직 시에는 황제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백 가지 방안을 올리니 현종은 이를 좌우 명으로 삼았다.

수장(輸場)을 설치했다. 하음장, 백에장, 집진장, 염장 등을 설치했다. 원할한 물량의 이송으로 3년 만에 7백만斛이 운송되었고 운송비만 30만 민을 절약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 절약된 돈을 황제에게 바쳐 신임을 얻으려고 권유하자,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관청에서 절약한 것인데 어찌 내가 그것을 가지고 황제의 은총을 언짢습니까?" 절약한 돈으로 쌀을 사 보관토록 조치했다. 그는 뛰어난 경제가이면서 청렴한 공직자였다. 민생안정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불기안정과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공으로 선임 재상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황제에 대한 충성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우선시하는 그의 자세는 현종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배요경과 장구령은 관계가 원만했는데 황제는 그들을 같은 당파의 사람으로 보았다. 황족인 이임보가 조정에서 황제의 신임을 얻어 예부상서 겸 중서문하삼품이 되었다. 재상급으로 승진한 것이다. 736년 현종은 장구령과 배요경을 재상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임보를 겸서령으로 기용했다. 삭방절도사인 우선객을 공부상서 겸 동중서문하삼품으로 삼아 재상급으로 올렸다. 이로써 이임보가 정국을 주도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743년 세상을 떠나니 문헌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 나주, 2층주택,사정상"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1000만원~~  
급매 - 6200만원
- (2018년 4월 10일까지 완불조건)
- 문의. 010-3605-5000